

교회에 속한다는 것

(본문 고전 12:12-14)

고린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 ▶ 당시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위해 많은 성경 기록을 남김. 고린도전후서 29장.
이것은 역설적으로 문제가 많은 곳에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 또한 크다는 것을 반증함.

- ▶ 로마 가톨릭 문화가 만연되어 있는 한국 교계의 현실에서 봤을 때, 고린도교회와는 전혀 다른 이유로 우리 교회가 어려움이 많음. 우리 교회가 추구하는 가치인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에 대한 믿음, 비형식의 신약교회, 자발성을 담보하는 헌금의 원리, 풀링이라는 교회 건축 방식 등. 옳은 것을 추구하는데 따른 옳지 못한 문제제기. 이것은 잘못된 것으로 문제가 많았던 고린도교회에 대한 사랑과 관심 그 이상으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이 크다고 생각함.

그러므로 지금의 교회와 성경, 목사님에 대한 여러 비방과 공격, 이보다 더 크게 찾아올 수 있는 그런 어려움에 대해 우리 성도들이 어떤 마음과 자세로,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일 것인지가 중요한 것!

교회가 하나가 되어 이 어려움을 극복해 나가는 것이 필요한 시기. 교회가 하나되기 위해 시스템이 아닌 각자 '나는 과연 교회에 속해 있는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아야 함.

교회에 다니는 것과 교회에 속하는 것은 그 무게감과 책임감에 있어 큰 차이가 있음.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초대 교회의 영적 선물들은 대개 하나님의 은혜가 비범한 형태로 특별히 나타난 것(8-10절)이었음. 그래서 바울은 이런 선물의 남용을 막기 위해 선물들의 실질적인 면을 강조함. 성령께서는 영적 선물들을 주셔서 성도들이 교회를 세우고 섬기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열매를 맺게 하심.(7절)

따라서 모든 영적 선물에는 중대한 책임이 뒤따름. 즉 각자에게 주신 영적 선물이 한 몸을 이룬 그리스도의 교회안에서 어떻게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지를 오늘 본문 고전12장을 통해 알려주고 계심.

현재의 우리 교회에 적용해 보면, 교회에 속한 성도들이 각각 지체로써 어떤 역할을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것인지에 대해 고민.

교회에 속한다는 것

1.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어야 한다. (3절, 13절)

3절 :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는 자 → 예수님을 그 누구도 저주받은 자라 하지 않음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자 → 예수님을 주라고 말함

13절 : 성령 침례를 통한 신자와 그리스도의 연합(한 몸), 또한 신자와 신자의 연합이 가능

구원받지 못한 사람도 교회를 다닐 수는 있다. 하지만 속할 수는 없다.

예고없이 찾아오는 죽음에 준비되어 있는가? 구원받지 못하신 분은 구원받으셔야 한다. 생각을 돌이키라.

2. 같은 성령, 같은 주, 같은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직무, 활동(교회에서의 역할)을 부여받음. (4~6절)

가. 이 사랑침례교회로 인도하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 전제

나. 교회에서 내 역할이 무엇인가를 찾는 능동적인 사람 - 교회에 속한 사람

1) 나 자신에 대해 잘 알아야 함. 받은 소명, 능력, 장점, 단점, 선물, 상황, 환경 등

2) 교회에 대해 잘 알아야 함. 교회의 철학, 문화, 가치

가) 사랑침례교회의 철학과 문화 요약 (별첨)

나) 교회의 철학과 가치에 대한 동의. 강제로 이루어지지 않음. 개인의 영혼의 자유에 따라 하는 것.

(영혼의 자유 = 양심의 자유 = 선택의 자유)

1948년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영국의 T.S 엘리엇

「모든 사람은 이것이든 저것이든 하나를 선택한다. 그리고 그들은 그것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만 한다.」

다) 우리가 교회를 선택한 것에 대해 어떤 책임이 따르는가? 사랑침례교회의 철학과 문화 내용 참고

- 교회 리더의 지도가 합당한 것이면 그것을 따를 책임

(히13:7)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 주고 너희를 다스리는 자들을 기억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깊이 살펴보고 그들의 믿음을 따르라.

라) 영혼의 자유가 방종이 되지 않으려면 '선택의 책임'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

3. 개별적으로 성령님의 나타나심이 있다. (7절, 11절)

(요3:27) 요한이 응답하여 이르되, 하늘에서 주지 아니하시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

(롬12:6) 그런즉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따라 우리가 다른 선물들을 가지고 있으니

가. 각자의 선물이 다르다. 뛰어남과 약함의 차이가 아님!

∴ 모든 것이 다 성령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직무와 역할의 귀천(貴賤)을 논할 수 없다.

(롬2:11) 이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외모를 중시하지 아니하시기 때문이다.

→ 겉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으로부터 나타나는 성령님의 일하심을 지체들이 느낄 수 있다.

4. 한 몸 의식이 필요하다. (14~21절)

-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각 지체를 한 몸 안에 두심.(18절)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은 다른 지체를 부정할 수 없고 나 스스로 지체임 또한 부정할 수 없음. 결국 한몸.

가. (22절) 약하게 보이는,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 단지 인간적인 생각일 뿐임.

하나님께서서는 몸을 다 같이 고르게 하시고 부족한 부분에 풍성함을 더해 주심.

건강에 어려움이 있는 분들은 약하게 보이고 덜 귀한 것으로 여기는 신체의 부분이 정말 중요하고 귀한 것이라는 생각을 갖게 됨. → 교회 모두에게 유익이 됨을 기억해야 함.(7절)

나. (25절) 이것은 몸 안에 분쟁이 없게 하고 오직 지체들이 서로 같은 보살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1) 교회에 속한 사람은 몸(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지 않는다.

(히13:22)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권면의 말을 용납하라.

교회에 속한 사람은 분쟁이 아닌 지체에 대해 간청과 권면의 방법을 취한다.

♣ 권면에 대한 생각 - 권면은 어려움. 그러나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권면의 때가 분명 있음.

권면(勸勉) : 남을 알아듣도록 타일러서 어떤 일에 힘쓰게 함.

① 권면을 하는 경우

- 기다림이 필요하다. 권면의 대상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성장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 옷차림, 언행과 같은 교회 문화에 대한 것부터 성경의 교리에 대한 오해나 무지

- 권면을 하기 위해서는 말씀에 대해, 그리고 지체에 대해 알아야 한다.

→ 말씀에 대한 실제적인 지식과 지체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함.

- 중고등부 교사로서 아이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치고 권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아이의 성향, 가정 학교의 상황, 부모의 관심 등등 생각할 것이 한두가지가 아니다. 성인들에 대한 권면은 오죽하랴.

→ 지체에 대한 관심과 애정, 사랑이 있을 때 권면할 수 있다.

- 지혜롭게 해야 한다. (빌2:3)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 겸손함과 온유함이 필요하다.

② 권면을 받는 경우

- 나는 권면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가?

- 지체가 어떤 형태로든 해 주는 충고를 받아들일 자세가 되어 있는가?

- 양심에 거스르지 않게 예는 예, 아니오는 아니오라고 말할 수 있는가?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한 몸이며 각각 지체이기 때문에 권면을 할 수도 있고 권면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을 늘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권면은 서로를 돌아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갈6:1) 형제들아, 만일 어떤 사람이 잘못에 빠지거든 영적인 너희는 온유의 영으로 그러한 자를 회복시키고 네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에 들지 않게 하라.

교회에 속한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몸의 지체이기 때문에 주인 의식을 가지고 몸을 돌본다. 결코 분쟁과 다툼으로 하지 않는다. 분쟁과 다툼은 마치 자해하는 것과도 같다.

5. 교회에 속한 사람은 지체를 보살피고 함께 고통 받고 함께 기뻐한다. (26절)

(빌2:4) 각 사람이 자기 일들만 돌아보지 말고 각 사람이 남의 일들도 돌아보라.

마치 부모-자식-손자의 가족적 공동체가 됨. 형제, 자매가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안타까운 마음으로 기도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자세가 되어 있을 때 교회에 속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내가 경험한 것과 비슷한 경험을 하고 있는 지체에게는 더욱 깊이 있는 위로와 공감대 형성이 가능하며,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위로와 힘이 될 수 있다. (개인회생, 아이 4)

이러한 지체간의 깊은 교제가 세상과는 분리된 교회를 더욱 강력한 결속력을 갖게 해 준다.

(롬12:15)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슬피 우는 자들과 함께 슬피 울라.

★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려면 지체들과의 진솔한 교제가 있어야 한다.

6.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한다.(27절)

자기 백성을 모으시는 하나님의 원리 제시. 교회는 그리스도의 지체라는 인식과 근거를 가지고 모여야 한다. 이러한 인식이 없이 모이는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결론

▶ 하나님은 교회의 하나됨을 기뻐하시고 원하신다.

(빌2:2) 너희는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며 한 마음과 한 생각이 되어 내 기쁨을 성취하라.

▶ 교회에 속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그것은 교회와 생사고락을 함께 한다는 것이다.

교회에 속한다는 것은 생명력 있게 교회와 유기적으로 묶여 있다는 것이다. 몸된 교회를 위해 지체로서의 책임과 역할, 희생을 마다하지 않는 것이다. 교회에 속하지 않은 사람은 자기에게 손해가 될 것 같거나 자기의 기준과 다르면 언제든지 달아날 준비를 하고 있다.

교회에 속하는 것의 의미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검증하고 점검함으로 교회를 견고하게 세워나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던져 볼 질문 하나,

‘나는 이 교회에 속해 있는가?’